

케이스탯 2021년 8월 사회지표

■ 월 정기 지표

- _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잘못된 방향’, 우위 지속
- _ 경제 방향성 : ‘잘못된 방향’ 61%로 지속 우세
- _ 정부 신뢰도 : 반등세지만, 속도는 매우 느려
- _ 정부정책 만족도 : 전 계층에서 ‘만족 않는다’ 높아
- _ 정당 호감도 : 마음에 드는 정당 ‘없다’, 73%
- _ 다음 달 개인 소득 전망 : 부정 전망 우세
- _ 다음 달 개인 지출 전망 : 추세적으로 ‘늘어날 것’ 증가
- _ 부동산 가격 전망 : ‘지금보다 오를 것’ 지속 우위
- _ 주식 가격 전망 : ‘오를 것’ 전망 우위 지속

■ 8월 특별지표 : 뉴스 및 정보취득 방법

- _ 언론 신뢰도 : ‘신뢰 안한다’ 77%로 상승
- _ 언론사 뉴스 이용 방법 : 지상파 TV 1위 유지
- _ 일상적 정보획득 방법 : 스마트폰, 1위
- _ [스마트폰, 컴퓨터 이용자] 포털 사이트 절대적
- _ [TV 이용자] 지상파 TV 가장 높아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1년 8월 6일(금) ~ 8월 8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42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4\%$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1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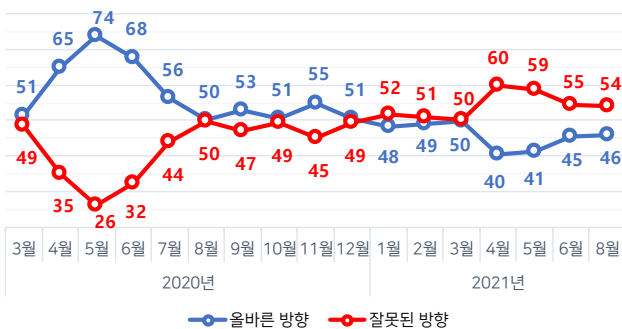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월 정기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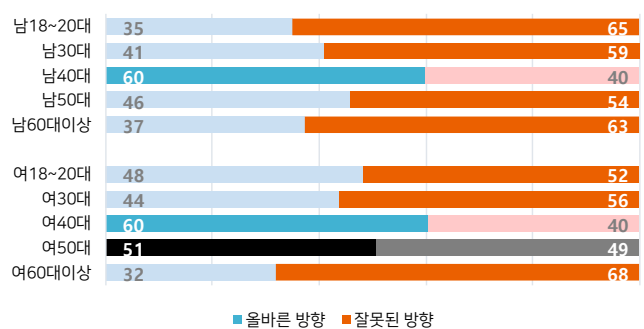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잘못된 방향', 우위 지속

- 전반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음
 - 2021년 4월을 기점으로 '잘못된 방향'이 우세를 점한 이후,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우위에 있음
- 8월 조사결과, '잘못된 방향' 54% vs '올바른 방향' 46%로, 지난 6월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남성과 40대 여성만이 '올바른 방향'이 우세를 보였고, 그 외 모든 성/연령에서 '잘못된 방향'이 우세함
 - 50대 여성은 '올바른 방향' 51% vs '잘못된 방향' 49%로 의견이 팽팽함
- 또 '올바른 방향'이 우세한 계층은 △충청, 호남 △진보층 △사회이익 중시층 등에 그침
- 이에 비해 '잘못된 방향'이 우세한 계층은 △서울, 경기.인천, TK, PK △보수층, 중도층 △전 직업군 △개인이익 중시층, 중간층 등임
 - 직업에서 화이트칼라 계층은 '올바른 방향'과 '잘못된 방향'이 공히 50%를 기록함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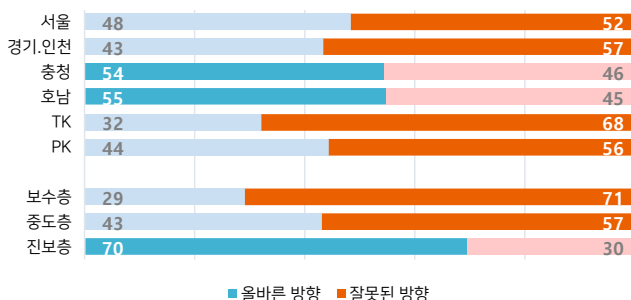


8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 성/연령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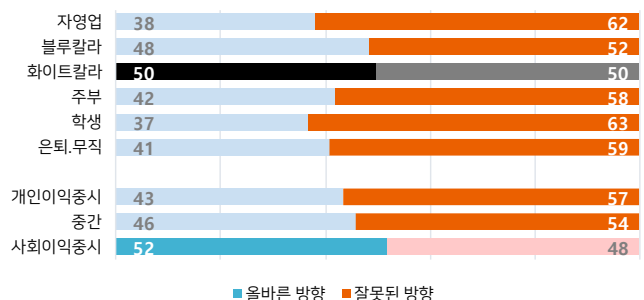
8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8.08조사,단위:%)



8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8.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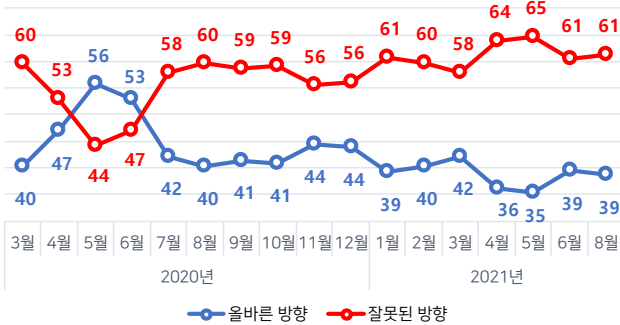
Kstat Point

- ☑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지만, 국민여론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대한민국 방향성 평가 여론이 달라지곤 했으나, 8월 여론에서는 연동성이 보이지 않음 :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델타 변이로 인한 연내 종식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이슈 민감성'이 약화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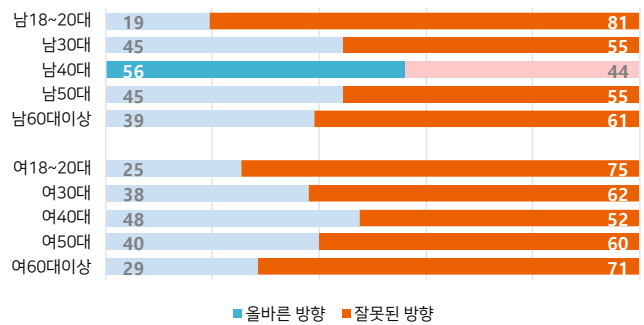
□ 경제 방향성 : '잘못된 방향' 61%로 지속 우세

- 경제 방향성에 대한 국민여론은 작년 7월 이후 지속적으로 부정평가 우세가 유지되고 있음
 - 8월 조사결과는 지난 6월과 같이 '올바른 방향'이 39% vs '잘못된 방향' 61%로 나타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잘못된 방향'이 우세하고, '올바른 방향'이 우세한 계층은 40대 남성, 호남, 진보층에 그침
- '잘못된 방향' 의견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여자 18~20대, 여자 60대이상 △보수층 △학생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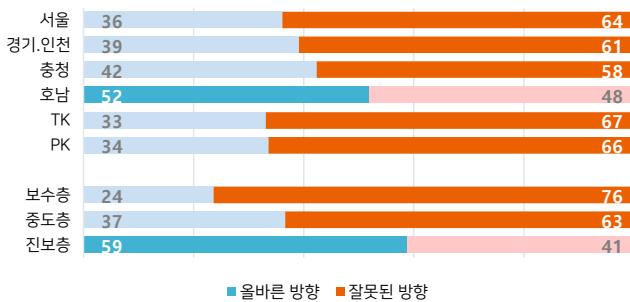
경제 방향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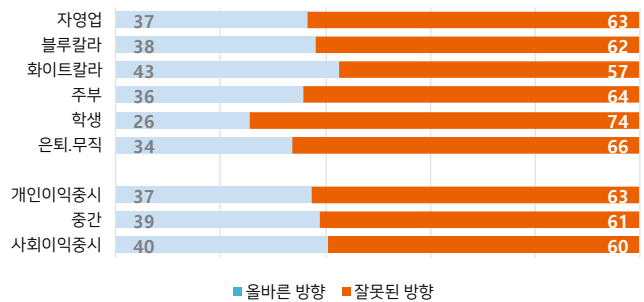
8월 경제 방향성 평가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8월 경제 방향성 평가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8.08조사,단위:%)



8월 경제 방향성 평가 : 직업별,이직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8.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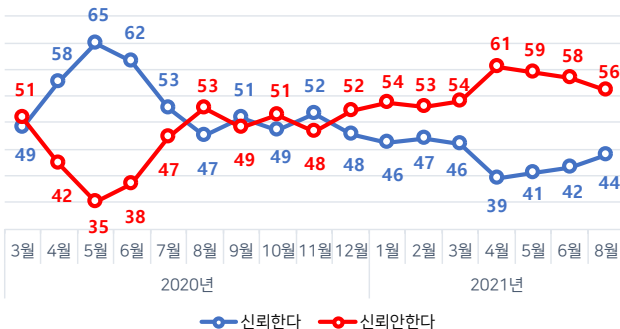
Kstat Point

- ☑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가경제는 수출 호조세를 유지하면서 올해 4%대의 경제성장이 예상됨
 - : 7월 우리나라 수출은 554억 달러를 넘어서며, 무역 역사상 월 기준 최고치를 달성함
- ☑ 그러나 국가경제의 호조에 불구하고, 일반 국민이 느끼는 경제상황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임
 - : 국민들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목격하면서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유지하는 양상임
 - : 7월 소비자심리 지수(CCSI)는 103.2로 전달보다 7.1포인트 하락함
- ☑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단기간 내에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다음 달 경제 방향성 평가 역시 부정적 평가가 우세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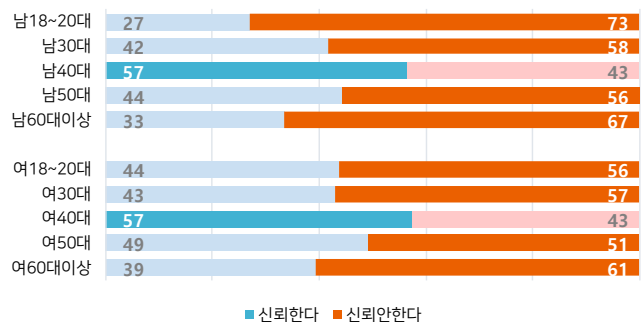
□ 정부 신뢰도 : 반등세지만, 속도는 매우 느려

- 정부 신뢰도는 지난 4월, 최저치(39%)를 기록한 이후 반등 양상을 보이면서 8월 현재 44%로 상승함
 - 8월 정부 신뢰도, '신뢰한다' 44% vs '신뢰안한다' 56%
- 하지만 4월에 비해 5%p 상승에 그치는 등 반등 속도가 느려, 부정평가와의 격차는 12%p로 나타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신뢰 안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 남자 60대이상 △TK △보수층 △자영업, 학생, 은퇴.무직자 등임
- '신뢰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40대 △여자 40대 △호남 △진보층 등에 그침
 - 충청지역과 사회이익 중시층의 경우 '신뢰 한다'는 의견과 '신뢰 안한다'는 의견이 팽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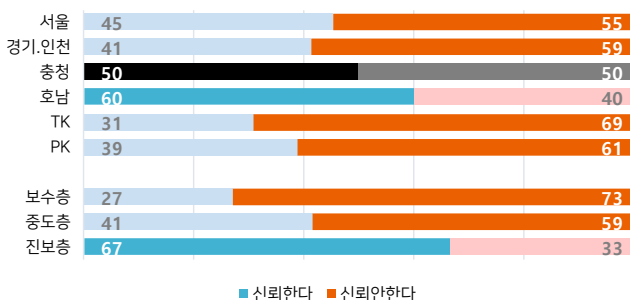
정부 신뢰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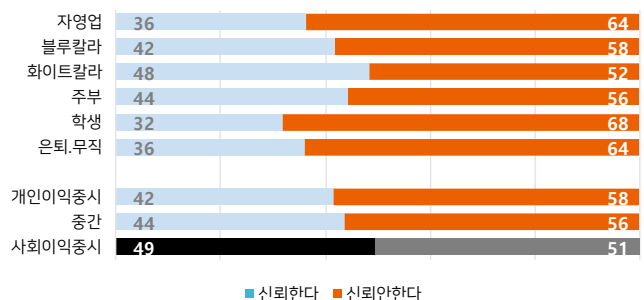
8월 정부 신뢰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1.08.08조사,단위:%)



8월 정부 신뢰도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8.08조사,단위:%)



8월 정부 신뢰도 :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8.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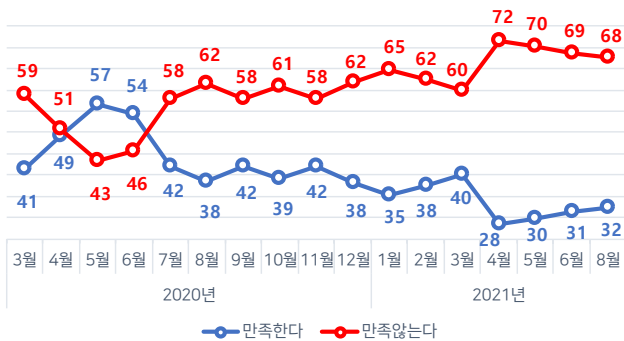
Kstat Point

- ☑ 현 정부 신뢰도는 지난 4월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39%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조금씩 회복해 재·보궐 선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가고 있음
 - : 현 정부와 여권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한 것이고, 야권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을 붙잡지 못한 양상임
- ☑ 이 흐름이 지속될 경우 최근까지의 '정권 교체론' 우위 여론 역시 변화될 가능성이 있음
 - : 한국갤럽 8월 5일 여론조사 결과 '정권교체' 여론은 47%이고 '정권유지' 여론은 39%인데, 이 역시 4월 재·보궐 선거 이후 조금씩 정권교체 여론이 줄어들었음(4월 15일 55%에서 8%p 하락)
- ☑ 이러한 배경에는 여권보다 야권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임
 - : 야당과 야권 대선후보 모두 '정권교체'를 동어반복할 뿐, '정권교체' 이후의 비전에 대한 뚜렷한 제시를 못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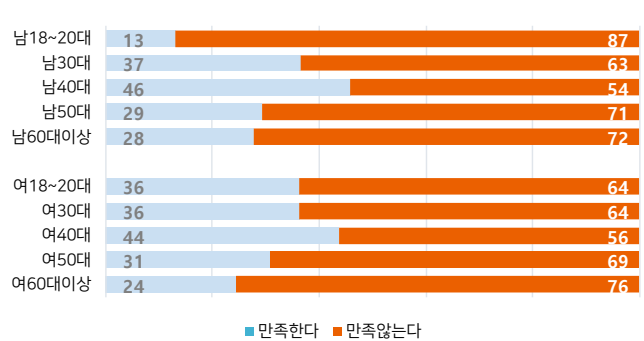
□ 정부정책 만족도 : 전 계층에서 '만족 않는다' 높아

- 정부정책 만족도는 '만족한다' 32% vs '만족 않는다' 68%로 지난 6월과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임
 - 지난 4월과 비교할 때 '만족한다'는 여론이 근소하게 개선되는 양상임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만족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해, 계층을 떠나 동일한 의견을 나타냄
 - 진보층만 유일하게 '만족한다' 51% vs '만족 않는다' 49%로 팽팽함
- '만족 않는다'는 의견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60대이상 △TK, PK △보수층 △자영업, 학생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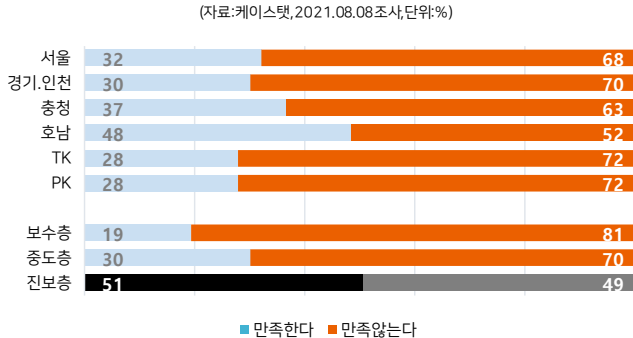
정부정책 만족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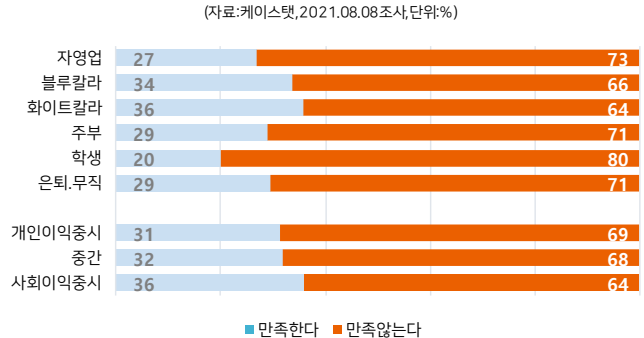
8월 정부정책 만족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8월 정부정책 만족도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8.08조사,단위:%)



8월 정부정책 만족도 :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8.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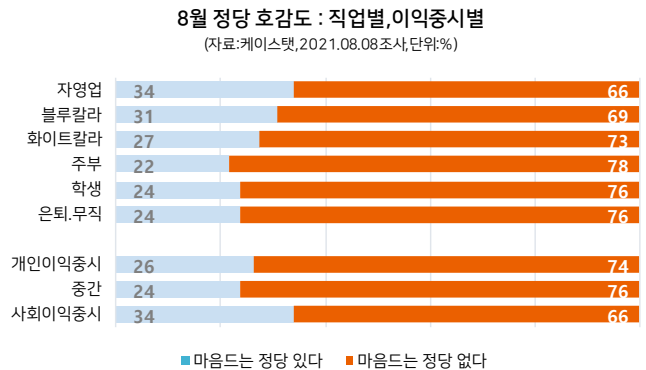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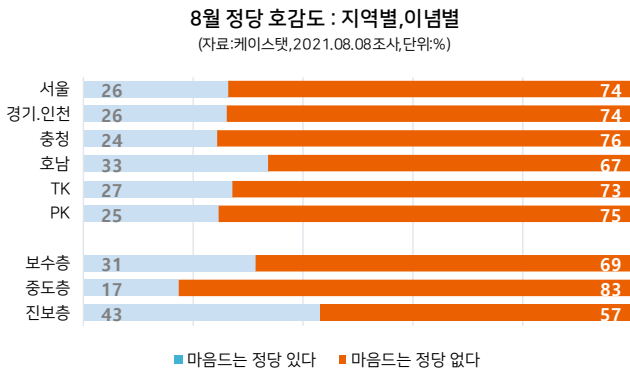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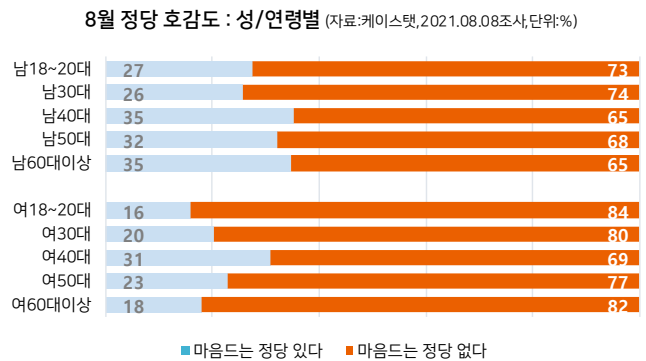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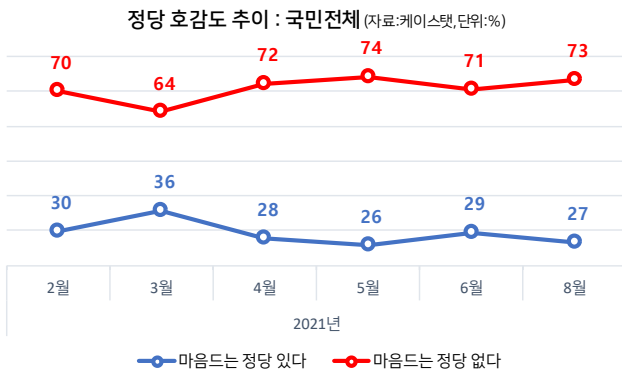


Kstat Point

- ☑ 정부정책 만족도는 정부 신뢰도보다 더 낮는데, 이는 정부 신뢰층에서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기 때문임
 - : 예를 들어 정부를 신뢰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남자 40대(57%)의 정부 정책 만족도는 46%로 낮음
 - : 진보층 역시 정부 신뢰도는 67%이지만, 정부 정책 만족도는 51%에 그침
- ☑ 낮은 정책 만족도를 견인하는 대표적인 정책은 '부동산 정책'인 것으로 분석됨
 - : 국민들은 우리사회 문제 중 '부동산 가격 폭등'을 가장 걱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선 후보는 '야권후보'라고 생각하고 있음
 - : 이러한 여론은 정부 신뢰층이라 할 수 있는 남자 40대, 진보층에서도 동일함
 -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33호 『차기 대선과 우리 사회 주요 문제』 참고
- ☑ 낮은 정부 정책 만족도는 그 자체로 '정권 교체론'의 토대가 되지만,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수록 국민적 관심은 현 정부 정책보다 대선후보의 비전과 공약에 쏠린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 정당 호감도 : 마음에 드는 정당 '없다', 73%

- 우리 국민 대다수는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고, 이러한 생각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요즘 우리나라 정당을 돌아볼 때, 선생님의 마음에 드는 정당이 있으세요? 없으세요?”라는 질문에 ‘있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하고, ‘없다’는 응답은 73%로 높게 나타남
 - 조사를 시작한 이후 이러한 부정적 응답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함
- ‘없다’는 의견이 특히 높은 계층은 △여자 2030세대, 여자 60대이상 △충청권, PK △중도층 △주부, 학생, 은퇴.무직자 △이익중시 중간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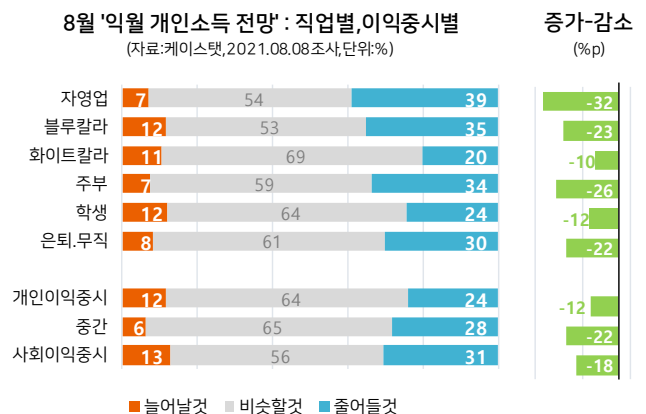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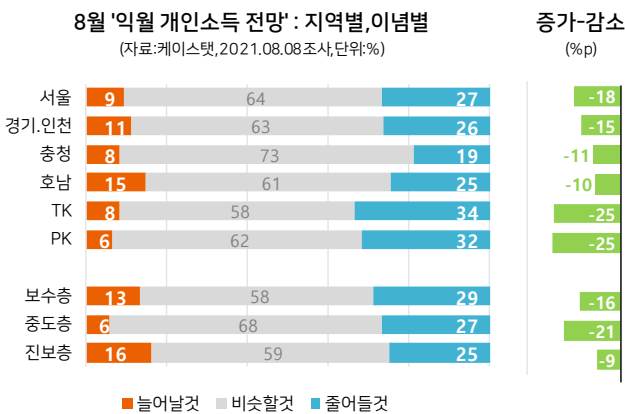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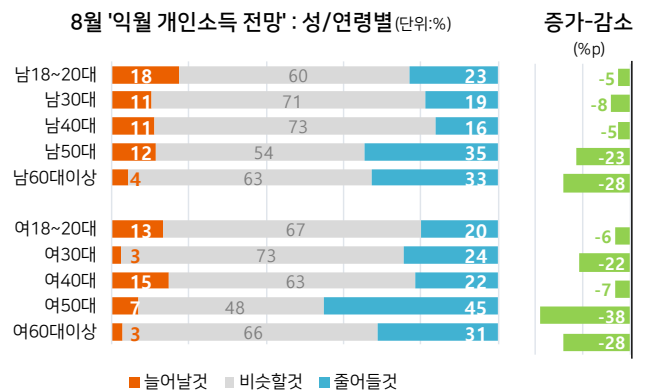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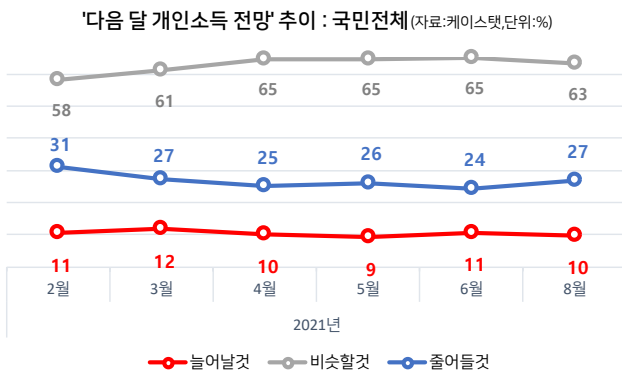


Kstat Point

- ☑ 정당 호감도에서 주목되는 점은 보수층의 태도임
 - : 마음에 드는 정당이 '있다'는 응답이 진보층은 43%인데 비해, 보수층은 31%에 그침
- ☑ 즉, 보수층이 현 정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정권교체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임
 - : 이는 대선후보 선호도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수층은 국민의힘 당내 후보들보다 당외 후보 격인 윤석열 후보를 선호하고 있음
-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보수층의 마음에 들어 하는 정당으로의 변화를 목표해야 하는 이유이고,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함
 - : 최근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것은 국민의힘 중심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수층의 생각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임

□ 다음 달 개인 소득 전망 : 부정 전망 우세

- 다음 달 개인 소득 전망에 대해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63%로 높은 가운데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27%로 높게 나타남
 -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은 10%에 그침
- ‘늘어날 것’에서 ‘줄어들 것’을 뺀 ‘차이’는 국민 전체적으로 -17%p로 6월에 비해 다소 악화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차이’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특히 마이너스 수치가 큰 계층은 △남자 5060세대 △여자 5060세대 △TK, PK △자영업자, 블루칼라, 주부 등임
-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은 계층은 △남자 2040세대 △여자 18~20대, 여자 40대 △진보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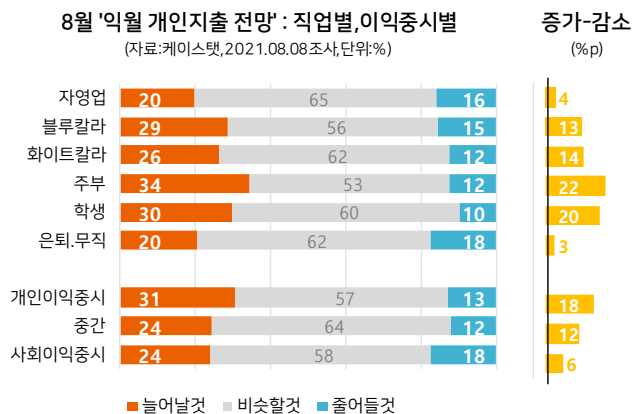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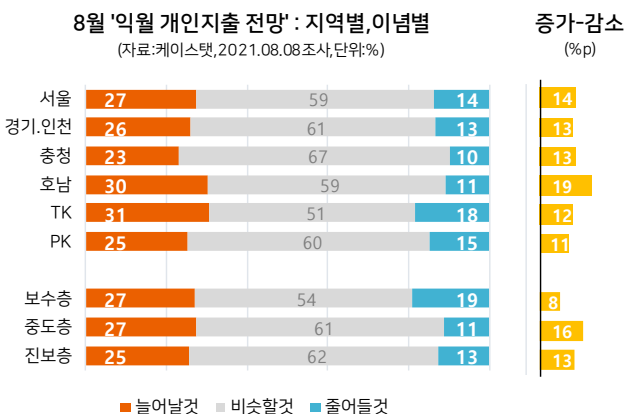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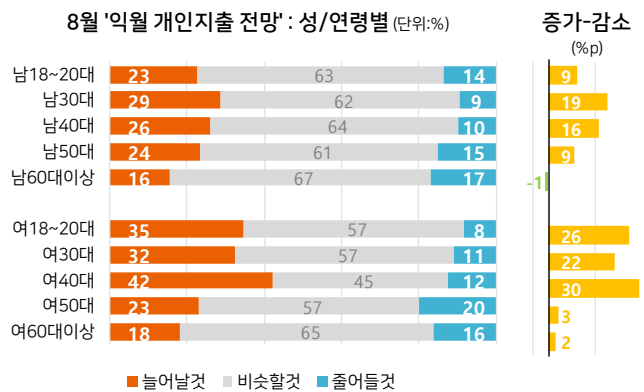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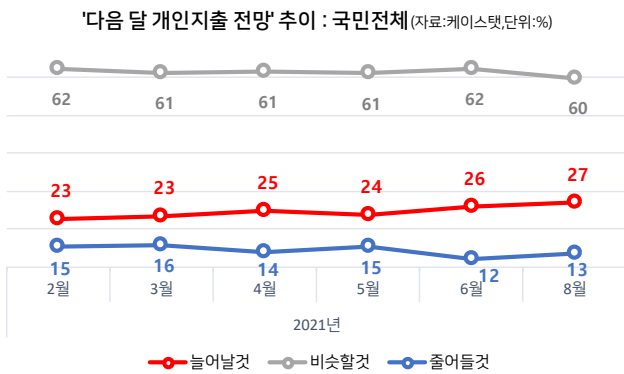


Kstat Point

- ☑ 지난 6월에는 다음 달 소득이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늘어나고,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줄어드는 등 수치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었음
 - : 6월 당시는 새로운 방역조치 시행을 앞두는 등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여, 국민들도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임
- ☑ 그러나 이번 8월 조사에서 다시 부정 응답이 늘어나는 등 수치가 악화됨
 - : 급속도로 4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네자릿수 확진자가 연일 발표되면서 국민들의 기대감이 다시 사그라든 것이 조사에 반영된 결과로 분석됨

□ 다음 달 개인 지출 전망 : 추세적으로 '늘어날 것' 증가

- 다음 달 개인 지출 전망을 보면, 지난 조사와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근소하게 높아짐
 -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60%이고, '지금보다 줄어든 것'은 13%로 큰 차이가 없음
- '늘어날 것'에서 '줄어든 것'을 뺀 '차이'는 국민 전체적으로 13%p로,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차이'(늘어날 것 - 줄어든 것)가 플러스를 기록했으며,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30대 △여자 2040세대 △호남 △주부, 학생 등임
- 상대적으로 플러스 수치가 낮은 계층은 △남자 60대이상(-1%p로 유일하게 마이너스 기록) △여자 5060세대 △자영업, 은퇴.무직자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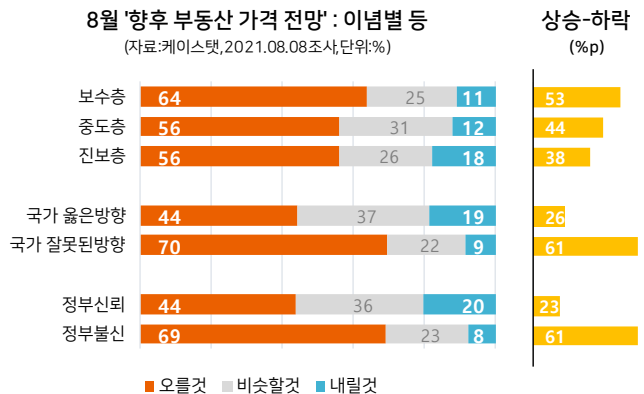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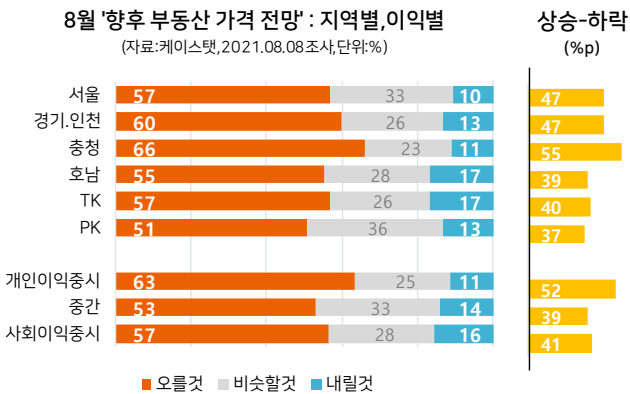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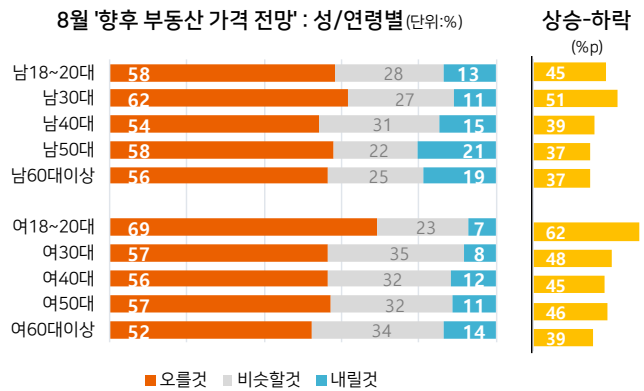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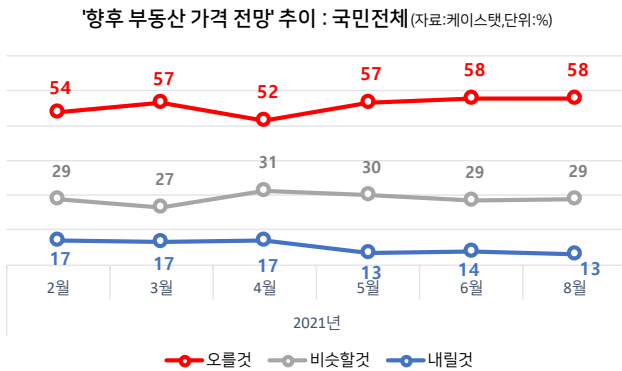


Kstat Point

- ☑ 다음 달 소득·지출 전망치는 조사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부정적인 수치가 유지됨
 - : 다음 달에 소득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거의 한결같음
- ☑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 소득 하락과 더불어 심리적 부담감의 표현으로 보임
 - : 실질적 소득 하락은 계속 늘어나는 가계부채 총 금액으로 나타나는데, 7월 현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누적 증가액은 78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1.7%(32조 9,000억 원) 증가함

□ 부동산 가격 전망 : '지금보다 오를 것' 지속 우위

-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은 조사 이후 지금까지 한결같이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8월 조사 결과 '지금보다 오를 것' 58%, '지금과 비슷할 것' 29%, '지금보다 내릴 것' 13% 순임
 - 조사를 시작한 2월과 비교하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소폭 증가하고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소폭 감소함
- 계층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차이'(오를 것 - 내릴 것)가 플러스를 기록, 계층과 무관하게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일치된 의견임
- '차이'가 플러스를 기록한 계층 중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2030세대 △여자 2050세대 △서울, 경기, 인천, 충청 △개인이익 중시층 △보수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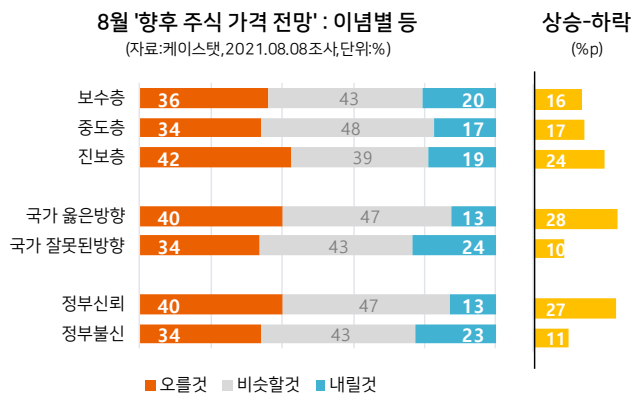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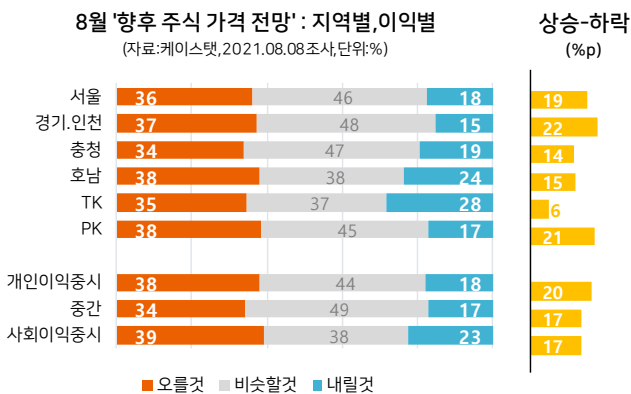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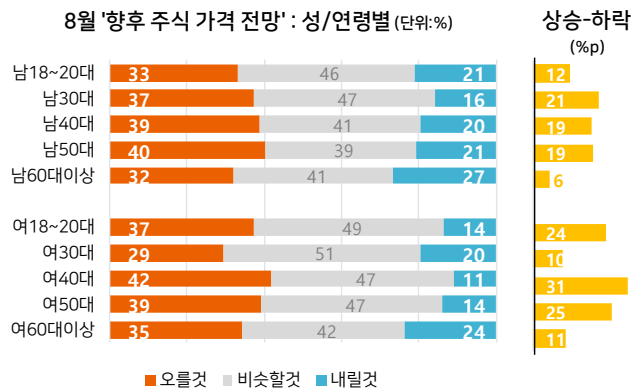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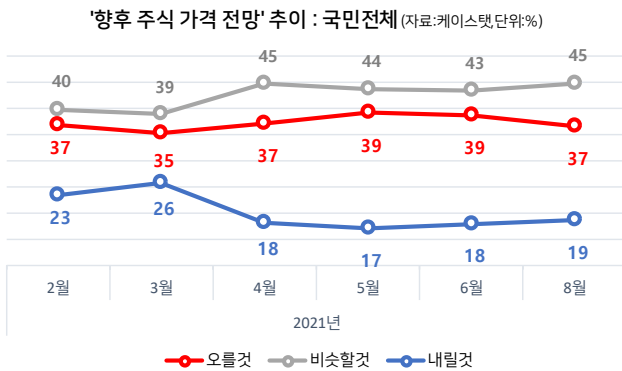


Kstat Point

- ☑ 한국부동산원 월간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수도권 집값 상승폭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실제로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음
- ☑ 한편, 부동산 가격 전망은 주관적 이념과 정치적 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 보수층이고,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정부를 불신하는 계층에서 '오를 것'이라는 수치가 두드러짐
 - : 이에 비해 진보층이고,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정부를 신뢰하는 계층은 '오를 것'이라는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음

□ 주식 가격 전망 : '오를 것' 전망 우위 지속

- 8월 조사결과 국민들은 주식이 지금과 비슷하거나(45%), 오를 것(37%)으로 생각함
 - '지금보다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19%에 그침
- '오를 것'에서 '내릴 것'을 뺀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플러스를 기록, 주식 시장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일치함
- 플러스 수치가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30대 △여자 18~20대, 여자 4050세대 △경기.인천, PK △개인이익 중시층 △진보층 등임
- 플러스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은 △남자 60대이상 △TK 등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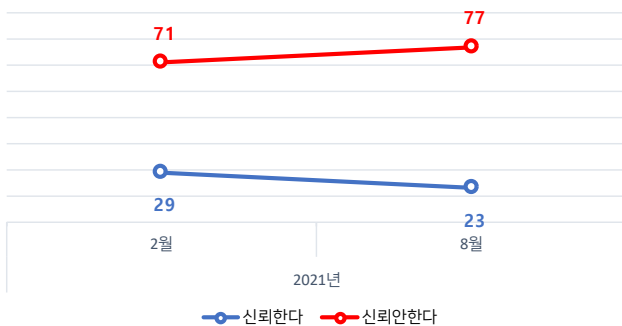
- ☑ 재테크 열풍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주식 시장에 대한 국민적 전망은 매우 낙관적이지만, 최근 주식 시장은 이와 다르게 소폭 하락함
 - : 16일 현재 코스닥 지수는 1,011.05를 기록, 지난 6월 21일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 미국의 금리 인상 조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데, 국민적 기대처럼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됨
- ☑ 한편, 주가 전망 역시 부동산 가격 전망처럼 주관적 이념과 정치적 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 보수층, 국가 잘못된 방향, 정부 불신층은 '오를 것'이라는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음
 - : 진보층, 국가 올바른 방향, 정부 신뢰층은 '오를 것'이라는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등 부동산 가격 전망과 정반대의 양상을 나타냄

8월 특별지표 : 뉴스 및 정보취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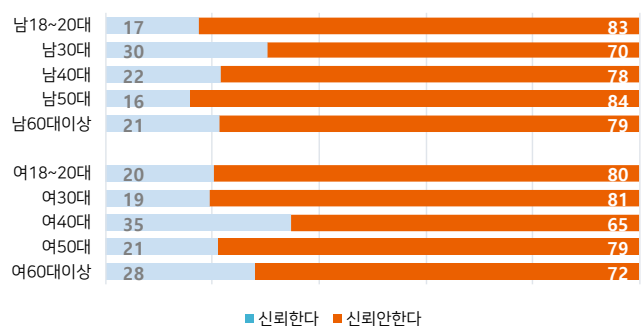
언론 신뢰도 : '신뢰 안한다' 77%로 상승

- 우리 국민들의 언론 신뢰도는 지난 2월에 비해 6%p 하락한 23%에 그침
 - “선생님께서서는 평소 우리나라 언론을 신뢰하세요, 신뢰하지 않으세요?”라는 질문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7%이고, ‘신뢰 한다’는 응답은 23%로 나타남
- 모든 계층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 남자 50대 △여자 2030세대 △경기.인천, 호남 △진보층 △자영업자 등임
- ‘신뢰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30대 △여자 40대 △학생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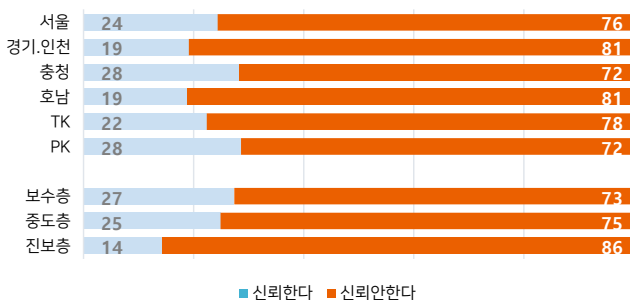
언론 신뢰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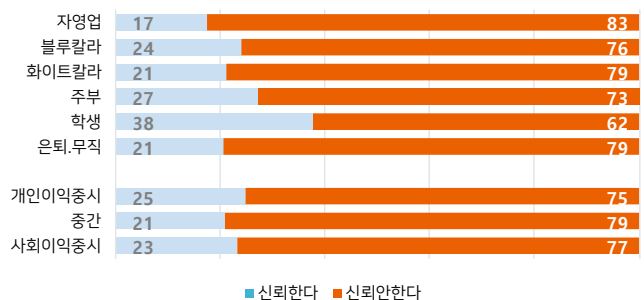
8월 언론 신뢰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8월 언론 신뢰도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8.08조사,단위:%)



8월 언론 신뢰도 : 직업별,이업종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8.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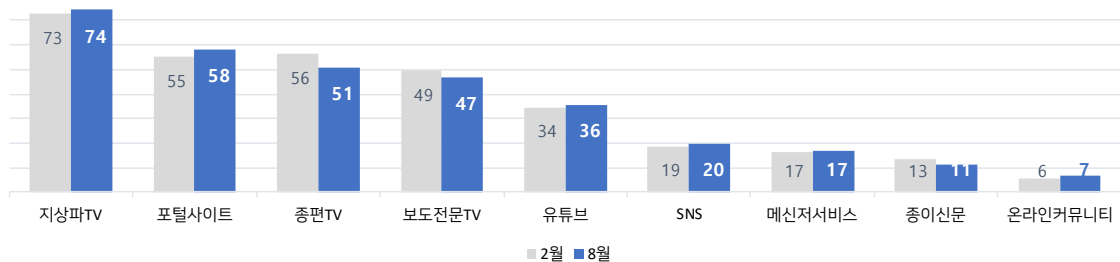
Kstat Point

- ☑ 언론 신뢰도는 지난 2월보다 악화된 수치를 기록, 언론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욱 높아짐
- ☑ 언론은 공론의 장이자 건강한 여론 형성이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렇듯 낮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은, 이른바 ‘정파적 입장’이 강조되는 보도 행태 때문이라는 지적임
 - : 보수언론, 진보언론 등으로 나뉜 채 공정성보다 정파적 입장에 따른 보도가 이뤄지는 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임
 - : 특히 대통령 선거 시기, 언론 보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언론사 뉴스 이용 방법 : 지상파 TV 1위 유지

- “지난 1주일을 돌아볼 때, 선생님께서 언론사 뉴스를 이용한 매체는 무엇이세요? 모두 골라 주세요.”라는 질문에 지상파 TV가 74%로 1위를 차지함
 - 지난 2월 조사에서도 지상파 TV는 73%로 1위를 기록함
- 다음으로 포털사이트(58%), 종편 TV(51%), 보도전문 TV(47%), 유튜브(36%) 순으로 응답함
 - 2월 조사에서 2위, 3위를 기록한 종편 TV와 포털사이트의 순위가 달라졌을 뿐 다른 순위는 같음

언론사 뉴스 이용 방법(복수응답)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1.02.07/08.08조사,단위:%)



- 성/연령별 및 이념성향별 매체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지상파 TV 뉴스 영향력이 절대적이지만 성/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2030세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상파 TV 뉴스 영향력이 낮고, 포털 사이트와 유튜브, SNS 등까지 이용 폭이 넓음
 - 4060세대는 지상파 TV 영향력이 절대적이고, 특히 남자 60대이상은 포털사이트를 가장 애용함
 - 보수층은 종편 TV를 선호하는데 비해 진보층은 보도전문 TV를 선호함
 - 한편, 60대 이상 남성의 경우 종이신문의 주된 구독자임

	지상파 TV	포털 사이트	종편 TV	보도전문 TV	유튜브	SNS	메신저 서비스	종이신문	온라인 커뮤니티
남18~20대	63	53	37	41	45	26	17	6	7
남30대	69	63	47	33	34	12	15	10	4
남40대	76	63	49	46	41	16	15	7	6
남50대	74	61	50	50	42	24	15	14	6
남60대이상	83	70	69	66	44	21	13	27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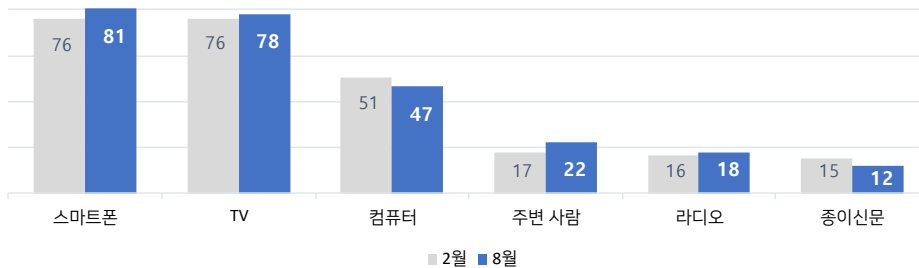
	지상파 TV	포털 사이트	종편 TV	보도전문 TV	유튜브	SNS	메신저 서비스	종이신문	온라인 커뮤니티
여18~20대	64	54	35	33	34	37	28	5	6
여30대	68	57	44	33	32	19	20	7	8
여40대	82	58	57	52	25	12	14	8	7
여50대	84	55	56	55	31	18	17	13	11
여60대이상	75	48	66	57	29	12	18	19	5

	지상파 TV	포털 사이트	종편 TV	보도전문 TV	유튜브	SNS	메신저 서비스	종이신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수층	72	66	60	48	39	21	16	13	4
중도층	74	53	49	44	34	18	17	10	7
진보층	76	62	45	51	37	23	17	12	8

□ 일상적 정보획득 방법 : 스마트폰, 1위

- “지난 1주일을 돌아볼 때, 선생님께서는 어떤 매체를 통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해당 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라는 질문에 스마트폰이 8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TV(78%)로 나타남
 - 지난 2월에 비해 스마트폰 비중이 높아지면서 1위를 차지함
- 다음으로 컴퓨터(47%), 주변 사람(22%), 라디오(18%), 종이신문(12%) 순으로 조사됨

일상적 정보획득 방법(복수응답)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1.02.07/08.08조사,단위:%)



- 성/연령별 및 이념성향별 일상적 정보획득 방법을 살펴보면 성/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 18~20대는 스마트폰이 절대적으로 높고, 여자 18~20대의 경우 주변사람 의견을 가장 많이 들음
 - 3050세대는 스마트폰과 TV 이용이 비슷한 가운데, 남성의 경우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 60대이상 계층은 스마트폰에 비해 TV 이용이 높으며, 남자 60대이상은 컴퓨터 이용도 많이 함

	스마트폰	TV	컴퓨터	주변 사람	라디오	종이신문
남18~20대	90	63	67	19	10	8
남30대	83	77	49	19	21	14
남40대	84	84	53	24	24	11
남50대	83	74	51	21	23	11
남60대이상	66	91	65	18	24	28

	스마트폰	TV	컴퓨터	주변 사람	라디오	종이신문
여18~20대	91	66	39	32	6	5
여30대	82	69	33	19	17	7
여40대	81	86	35	23	19	6
여50대	79	85	39	22	18	12
여60대이상	66	89	33	22	17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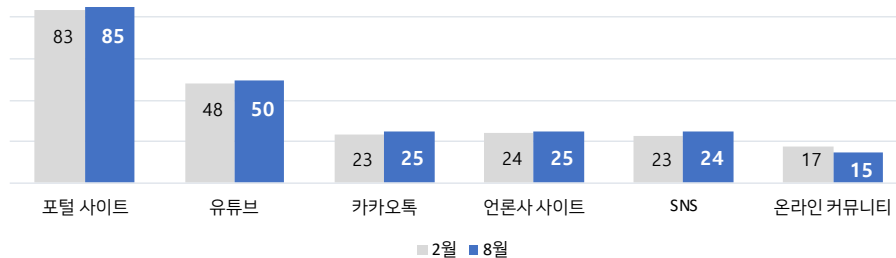
	스마트폰	TV	컴퓨터	주변 사람	라디오	종이신문
보수층	79	79	55	24	16	15
중도층	81	78	43	20	18	11
진보층	81	78	47	25	21	10

□ [스마트폰, 컴퓨터 이용자] 포털 사이트 절대적

- 일상적 정보획득 방법에 있어 스마트폰과 컴퓨터 이용 응답자만 한정해(929명), 주 사용 방식을 질문한 결과 포털 사이트가 85%로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남
 - 다음은 유튜브(50%), 카카오톡(25%), 언론사 사이트(25%), SNS(24%), 온라인 커뮤니티(15%) 순으로 조사됨
 - 지난 2월과 비교해 수치 변화는 크지 않음

[스마트폰.컴퓨터 이용자만] 일상정보 획득 경로(복수응답) : 응답자전체

(자료:케이스탯,2021.02.07/08.08조사,단위:%)



- 성/연령별 및 이념성향별 스마트폰/컴퓨터 이용 방식을 살펴보면 포털 사이트 이용이 절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2순위부터는 다소 차이가 있음
 - 유튜브를 이용해 일상적 정보획득을 하는 경우가 많음(특히 남자 2030세대)
 - 여자 18~20대의 경우 카카오톡과 SNS를 많이 이용하는 점이 특징적임
 -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의 유튜브 이용과 언론사 사이트 이용률이 높음

	포털 사이트	유튜브	카카오톡	언론사 사이트	SNS	온라인 커뮤니티
남18~20대	81	70	31	25	34	7
남30대	89	60	17	19	20	12
남40대	93	49	21	25	16	10
남50대	85	50	17	16	25	13
남60대이상	93	53	25	33	23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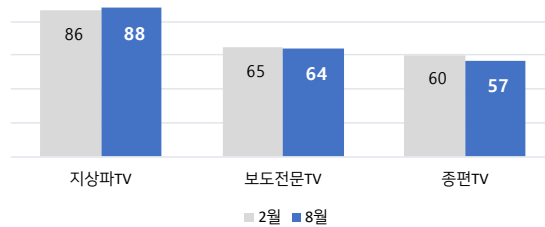
	포털 사이트	유튜브	카카오톡	언론사 사이트	SNS	온라인 커뮤니티
여18~20대	80	42	41	19	33	29
여30대	83	45	23	25	27	21
여40대	85	39	23	28	24	16
여50대	81	44	25	28	27	21
여60대이상	77	41	24	29	14	14

	포털 사이트	유튜브	카카오톡	언론사 사이트	SNS	온라인 커뮤니티
보수층	85	53	22	32	25	16
중도층	85	48	26	20	24	14
진보층	85	49	25	27	25	17

□ [TV 이용자] 지상파 TV 가장 높아

- 일상적 정보획득 방법에 있어 TV를 이용한다는 응답자만 한정해(815명), 주 시청 채널을 질문한 결과 지상파 TV가 8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보도전문 TV(64%), 종편 TV(57%) 순으로 조사됨
 - 지난 2월 조사결과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임

[TV 이용자만] 일상정보 획득 경로(복수응답):
응답자전체 (자료:케이스탯,2021.02.07/08.08조사,단위:%)



- 성/연령별 및 이념성향별 TV 이용 채널을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지상파 TV 시청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보임
 - 보도전문 TV 주 시청자는 남자 5060세대와 여자 50대, 진보층으로 나타남
 - 종편 TV는 보수층이 가장 애용하는 미디어임
 - 한편, 남녀 18~20대의 종편 TV 시청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

	지상파 TV	보도전문 TV	종편 TV
남18~20대	91	63	47
남30대	94	53	59
남40대	88	62	55
남50대	86	70	58
남60대이상	85	74	64

	지상파 TV	보도전문 TV	종편 TV
여18~20대	93	56	36
여30대	89	57	56
여40대	90	64	60
여50대	86	73	62
여60대이상	83	64	67

	지상파 TV	보도전문 TV	종편 TV
보수층	84	61	69
중도층	89	64	53
진보층	91	70	52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34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34호는 『대선 후보 선호 요인과 여론조사 신뢰도 평가』라는 주제로 8월 26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